Gallery ED 대관
한라일보사 1층 Tel. 064)750-2543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52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월 7일 금요일(음력 12월 5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백록담 만설(滿雪) 지난 5일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6일 한라산 백록담에 많은 눈이 쌓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재난컨트롤타워 구축 '지지부진'

자연재해 대비 최상위 계획 수립 여전히 진행형
지진 전문인력 0명… 대형 재난 신속 대응 난망
도 "코로나19로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어려워"

지난해 제주에 유례없는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주도가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제 몫을 해낼 지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어야 할 자연재해 대비 최상위 법정 계획은 여전히 '수립중'이고,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엔 지진 전문 공무원도 없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법정 기한을 넘겨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 이 계획은 침수, 붕괴, 강풍, 월파, 대설 등 총 9개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원래 방재 분야 법정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됐지만 지난 2018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수립·시행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법 개정 이듬 해인 2019년부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해에 고시가 이뤄져야 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계획을 만드는 중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려워 수립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추진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다른 법정 계획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법정 시한을 지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계획 수립 용역이 잠시 중단됐었고, 충분한 검토 시간도 필요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며 "최대한 올해 상반기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진 전문인력 부재로 지진 예방 시책 발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에 지진과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 안전직렬 공무원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지진 연구 경험 등이 있는 전문 인력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진 전문가를 채용해 방재시책 발굴 또는 대응매뉴얼 개발, 단층 연구, 지진상황 전파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긴다.

지진 발생이 잦은 포항시와 부산시도 지진 관련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경기도는 더 나아가 전담 조직인 지진전담팀도 꾸렸다.

아울러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활성단층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연구 대상에 제주권은 빠져 있어, 지난달 지진 발생을 계기로 제주권에 대한 조사 재검토 요청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 연구 시작 당시엔 제주권이 (지진 관련) 국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뽑혔다"며 "이번에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기상청에 재검토 요청을 했고, 그게 되기 위해선 자체적 기획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까지 포함한 지진 방재 관련 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6일 <17시 기준> 신규 10 누적 4798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빅3' 유임… 조직안정화에 방점 예상

제주자치도, 오는 12일 민선 7기 마지막 정기인사
공로연수·명퇴 국장급 등 자리 메우는 수준 될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장급 인사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는 민선 7기 마지막 정기인사로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으로 떠나는 국장급 자리를 메우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직확대에 따른 인사 요인이 없어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청 '빅3'로 불리는 2급 이사관 자리인 허법률 기조실장과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유임이 예상되고 있다.

또 1962년 하반기생인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과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 황재종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장 후임에는 강재섭 총무과장이 승진 발탁될 가능성이 높고,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명퇴를 하는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자리는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이 이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장 후임은 허종민 기술지원국장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과 개방형 직위인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유임이 예상된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이 교육을 희망할 경우 건축직인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8일부터 정당 등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공무원·자치단체장은 행사 개최·후원 못해

8일부터 60일간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할 수 없는 금지 행위들을 6일 발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130만명이 방문할 만큼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제주 도민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관심에 저희 임직원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역 상생에 앞장서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JEJU DREAM TOWER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GRAND | HYATT JEJU
롯데관광개발 LOTTE TOUR

제주 드림타워
1주년 감사 이벤트

제주 드림타워 1주년 축하 메시지 또는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600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호텔숙박권 HOTEL VOUCHER 100명
또는
뷔페식사권 BUFFET VOUCHER Lunch / Dinner 250명 1인(2매)

*당첨 시 제공되는 바우처 이용은 제주도민증을 제출하는 본인에 한함

이벤트 기간 2022년 1월 16일 까지
이벤트 대상 제주도민분 누구나 참여가능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 20일

이벤트 참여방법 한라일보 웹사이트 접속 후 이벤트 배너 클릭 또는 QR 코드로 접속

문의 1533-1234